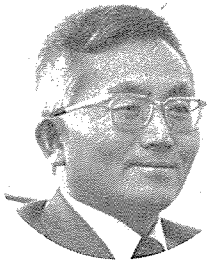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의 맥 48

혜성에 얽힌 이야기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혜성 오스틴이 찾아 왔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혜성이 다시 나타나 전세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관심 꺼리가 되었던 것이다. 요즘은 혜성은 그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작명을 하게 되어 있다. 오스틴 혜성은 1989년 12월6일 뉴질랜드의 아마추어 천문가 로드니 오스틴이 처음 그 존재를 발견하여 세계에 보고했다 하여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그저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호기심의 대상이나 되고, 또 천문학자들의 전문적 관심 대상으로 그칠 뿐이지만, 혜성은 옛날에는 그렇게 심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었다. 혜성의 등장은 그야말로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사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땅 서울에서...

1468년 9월 世祖가 죽고 그 아들睿宗이 조선 왕조의 제8대 임금이 되었을 때에도 혜성은 서울 하늘에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南怡 장군은 반역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남이가 죽게 되는 직접 원인은 다름 아닌 혜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實錄>에는 柳子光이 남이를 고발하는 과정과 이를 계기로 남이에 대한 수사 과정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자광과 그 밖의 몇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남이는 혜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간신이 날뿔 징조라고 해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자기가 거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그가 간신으로 지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예종의 장인 韓明澮였다.

벌써 5백년이 더 지난 옛 일이어서 딱부러지게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기란 어렵다. 아마 유자광이 모함하려는 생각도 좀 있었을 법도 하다. 또 당시 새로 임금이 된 세조의 아들 예종은 이미 남이를 좋아하지 않고 있었고, 한명회는 바로 예종의 장인이기도 했으니 이래저래 남이장군의 위치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 짚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太宗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국방장관격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남이가 만약 혜성이 나타났을 때 조금 조심만 했더라면, 아무리 정적의 모함이 있었다 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탓할 사람도 없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5백년 전의 우리 선조들은 혜성이란 “옛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벌려 놓을 징조”(除舊布新之象)라고 정말로 믿고 있었다. 혜성이 쿠데타의 전조라고 여겨졌다는 것은 유명한 死六臣사건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사건이 밀고에 의해 발각되어 성삼문 등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것은

1456년 음력 6월2일의 일인데, <실록>에는 바로 그 전달 4일부터 혜성을 관측한 기록이 있다. 만약 이 때 혜성이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사육신들은 세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혜성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던가는 1471(成宗 2)년 연말에 나타난 혜성에 대비해서 임금이 서울 두 곳에 특별경비군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혜성 때문에 서울에 경계 계엄령이 내렸다고 할 수 있다.

世宗 때의 천문학자 李純之가 쓴 <天文類抄>라는 천문학개론서에는 혜성이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들거나 또는 옛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벌려 놓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석되어 있다.

혜성이 전쟁이나 정변을 의미하는 나쁜 조짐이라는 믿음은 우리 동양에만 있던 생각도 아니었다. 서양 사람들도 혜성은 대단히 불길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양 사람들은 하늘은 완전하여 변하지도 않고 별이 지나갈 수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혜성을 별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혜성에 대한 기록은 서양보다 우리나라에 더 풍부하다. 그렇지만 혜성가운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에드먼드 헬리였고, 그래서 75년에 한번

찾아 오는 헬리혜성은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

남이장군이 모함을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뒤에 천천히 만들어져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남이는 오랑캐를 토벌하고 나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한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어지고 (白頭山石磨盡)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어지네. (豆滿江水飲馬無)

사나이 스물 나이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男兒二十未平國)

후세에 누가 그를 일러 대장 부라 하리!” (後世誰稱大丈夫)

전설에 의하면 이 시 가운데 셋째 줄에 있는 “사나이 스물 나이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이란 부분을 유자광이 일부러 “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고쳐 퍼뜨려서 그의 상관이던 남이를 모함했다는 것이다. 한시의 “未平國”이란 부분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어 “未得國”으로 하면 이 음모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혜성 이야기 보다는 이런 모함의 이야기로 끌어 가는 편이 더욱 그럴듯 하다는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10월24일 처음 고발당한 남이는 10월 27일 마지막 신문을 받게 된다. 그날은 안개가 잔뜩 낀 날이었다. 창덕궁의 승문당에는 신숙주, 한명회 등등 당시의 높은 자리에 있던 관리들이 늘어 섰고, 임금이 직접 문초를 지켜 보았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로 밝히겠다고 술을 한잔 청해 마시고 결박을 늦춰 주기를 청한 남이는 “신이 과연 모반을 꾀했소”라며 굴복했다. 아울러 영의정을 지낸 8순의 노신 康純이 그와 함께 공모했다고 밝혔

다. 野史에 의하면 나이 80의 강순은 고문에 못 이겨 자복하고 말았다. 처형되기 직전 강순은 남이에게 “남이야, 너는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를 모함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하느냐” 하였다. 남이는 “원통하기는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요, 당신이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구원해 주지 않았으니 원통히 죽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강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野史에 의하면 남이가 처음에는 모진 형벌도 견디며 굴복하지 않았으나 혹독한 고문으로 다리가 부러지자 군인으로써 앞날이 다 한 것을 알고 편하게 죽기로 결심한 것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여하튼 남이장군의 죽음은 혜성의 출현 때문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유자광의 모함이건, 남이가 지나치게 혈기 왕성해서 건방졌건 간에 그 혜성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惡名 높은 임금으로 정평이 있는 燕山君은 사실은 과학사에서만 보자면 상당히 현명하고 “과학적인”인

물이었던 것 같기도 할 지경이다. 여하튼 1500(연산 6)년 혜성이 나타나자 임금의 가까운 신하들에게 그것을 비밀로 하자고 말한다. 특히 言官들에게 혜성이 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런 비상한 災異에 대해 임금은 음식도 조심하고, 음악은 물론 잔치도 중단하고, 신하들의 난국 타개의 방도에 대한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번잡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매일 커가며 누구에게나 혜성이 잘 보이게 되어 임금의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때마침 다른 災異들까지 겹쳐 일어나자 임금은 이런 자연의 재이가 모두 정치의 잘못 때문임을 인정하고, 珥災(재이를 극복하기 위한) 求言을 하게 되고,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 왕은 오랫동안 중단하고 있던 經筵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경연이란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로 이런 기회란 사실은 임금이 신하들과 정치를 논의할 기회가 되는 것 이었다.

연산군은 지나친 신하들의 세력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이상현상이 있을 때마다 신하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임금의 행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하고 나서는 것 이었고, 연산군은 이를 막아 보려고 애쓴 것이다. 1506년 7월 연산군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였

다. 이미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을 잔뜩 위협해 놓은 그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이 보고되자, 다시는 그런 정도의 일은 보고할 것도 없다고 명령했다.

이런 때에 혜성이 나타났고, 천문관들은 이 심각한 재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보고가 들어 오자 임금은 의정부와 6조판서 이상을 모두 소집하고 말했다. “이미 이런 일들은 보고하지 말라했거늘 어찌 다시 이런 보고가 들어왔는가? 하늘의 이치란 알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자연의 우연한 현상일 뿐이지, 인간사가 잘못되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觀象監을 없애고 시간과 命課등만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게 하라”고 지시했다.

곧 관상감을 없애고, 그 대신 역법과 시간, 점치는 일등을 담당할 司曆署가 등장했다. 삼국시대 이래 2천년 우리 역사에서 천문관측기구가 없어진 일은 고려 때 잠깐과 이때의 두번 밖에 없다. 연산군이 얼마나 강경책을 써서 君權을 강화하고, 臣權을 견제하려 애썼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노력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며 많은 학자들의 희생을 몰아왔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觀象監은 두달 만에 복구되었다.

연산군이 혜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토정 비결>로 너무나 유명한 선조 때의 奇人인

土亭 李之菡은 1577년에 혜성이 나타난 것을 들어 혜성이야말로 吉兆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당시 土亭과 친분이 있던 栗谷 李珥의 <石潭日記>에 보인다. 1578년 11월3일자 울곡의 일기에 의하면, 토정은 울곡에게 前年에 있었던 혜성은 瑞星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울곡이 놀라 묻자, 토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인심이 흐터지고 세상이 어지럽기 짝이없어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려던 참이었는데, 혜성이 나타난 후에는 위와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인심이 크게 바뀌어 아무 일도 없이 지나지 않았소. 그러니 이 혜성은 상서로운 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三國史記>에 의하면 우리 역사에는 이미 고구려에 8번, 백제에 14번, 그리고 신라에는 27번의 혜성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에는 그 기록이 더 많고, 조선 시대에는 물론 훨씬 더 많은 혜성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렇게 혜성기록은 우리에게 훨씬 많지만, 그 과학적 성격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들은 서양 천문학자들 이었다. 그들은 그리스 이래 혜성은 별이 아니라, 달 보다 아래 지구에서 높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불꽃 같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중세까지도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서양 사람들이 한번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그 정체를 먼저 밝히게 된 셈이다.